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현 ⑤

# 백성 치료나선 ‘임금님 주치의’ 허준

## 500여 공중의서 보완, 14년만에 「동의보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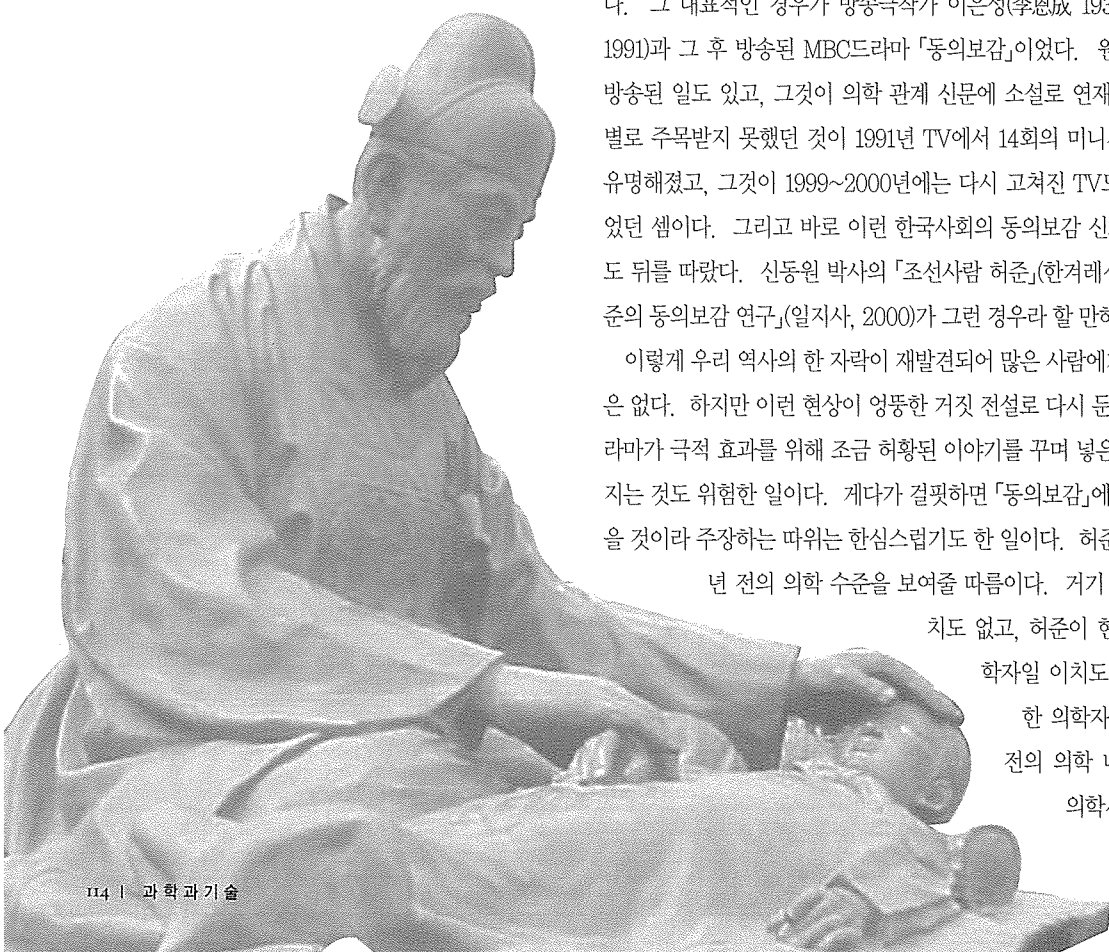
| 글 |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교수 parkstar@unitel.c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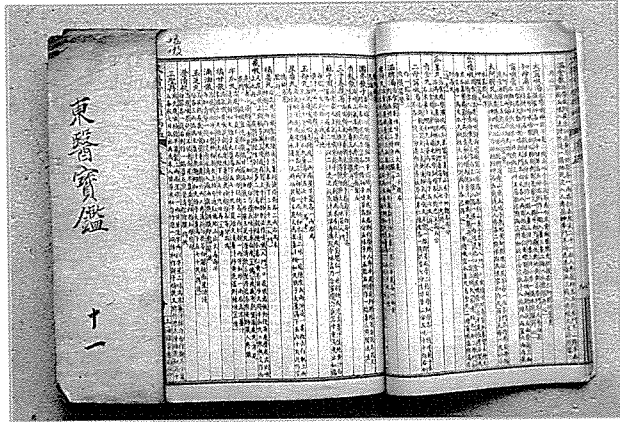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몇 백년 전의 의학 서적 이름을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알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의보감」은 두 말이 필요 없이 한국의 가장 널리 알려진 의학서(醫學書)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거나 이 책에 있다면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을 지경이기도 하다. 이 책을 지은 허준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동의보감」과 그것을 쓴 조선 중기의 의사 허준(許浚 1539~1615)이 이처럼 대단한 인물로 부상한 것은 최근의 마스크과도 관련이 깊다. 아마 오늘날의 소설과 방송이 아니라면 허준과 그의 「동의보감」은 그리 유명하게 되지 못했을 것도 분명하니 말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극작가 이은성(李恩成 1937~88)의 「소설 동의보감」(3책, 1991)과 그 후 방송된 MBC드라마 「동의보감」이었다. 원래 이 작품은 간단하 드라마로 방송된 일도 있고, 그것이 의학 관계 신문에 소설로 연재되었던 것이다. 그럴 때까지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1991년 TV에서 14회의 미니시리즈로 방송되는 바람에 한껏 유명해졌고, 그것이 1999~2000년에는 다시 고쳐진 TV드라마 「허준」을 한껏 떠올려 주었던 셈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한국사회의 동의보감 신드롬을 반영하듯 학자들의 연구도 뒤를 따랐다. 신동원 박사의 「조선사람 허준」(한겨레신문사, 2001)과 김호박사의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일지사, 2000)가 그런 경우라 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 역사의 한 자락이 재발견되어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진다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엉뚱한 거짓 전설로 다시 둔갑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드라마가 극적 효과를 위해 조금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 넣은 것이 마치 사실인양 널리 알려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걸핏하면 「동의보감」에 있는 말이니 그 약이 특효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따위는 한심스럽기도 한 일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지금부터 400년 전의 의학 수준을 보여줄 따름이다. 거기 써어 있는 내용이 모두 맞을 이

치도 없고, 허준이 현대 의학을 뛰어넘는 대단한 의학자일 이치도 없다. 허준은 4세기 전의 훌륭한 의학자일 뿐이고, 「동의보감」은 4세기 전의 의학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준 좋은 의학서일 뿐이다.





동의보감 사본, 한의학의 집대성한 책

허준의 일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최근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못한 형편이었다. 먼저 그의 출생년은 최근까지도 족보

등을 근거로 1546년이나 1547년이라 알려져 왔다. 그런데 1998년 전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주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그림 한 장에서 그의 출생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그림은 <태평회맹도병풍>(太平會盟圖屏風=보물 668호)로 왜란 때 선조 임금에 따라 의주까지 피난했던 호성(扈聖) 공신들을 그려 놓았다. 그런데 여기에 허준의 출생년을 기해생(己亥生)이라 밝히고 있는 것이다. 1546년 전후의 기해년이라면 1539년이 된다. 그의 출생지는 아직 확연히 밝혀져 있지 못하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역시 최근에서야 그의 비석이 발굴되어 분명해졌다. 묘소는 1991년 9월에 발견되었는데,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하포리 산 129이고,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다.

### 서얼출신이 승록대부까지 올라

그의 아버지는 용천 군수 허론(許礪)이었는데, 어머니는 김씨로 아버지의 첩이었다. 마침 첩의 자식(庶孽)에 대한 차별이 시작된 후여서 허준은 제대로 된 양반으로 일생을 살 수가 없었다. 서얼은 양반 아래의 신분인 중인(中人)으로 취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의사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신분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금 같으면 오히려 대단히 성공한 직업으로까지 여겨질 의사나 법관 등을 당시에는 양반 측에는 들 수 없는 중인으로 쳤고, 그래서 많은 서얼 출신이 이런 일을 맡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가 어떻게 의관이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 취재(取材: 과거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해 실시한 특별채용시험)를 통했을 듯도 하다. 선조 8년(1575) 내의원(內醫院: 왕을 비롯한 궁중의 왕족과 대신의 치료를 담당하던 국가 최고의료기관)에

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많은 공을 세워 승진을 거듭하였다. 선조 39년에는 의관(醫官) 출신으로는 가장 높은 승록대부(崇祿大夫: 종1품)에 봉해졌으며, 죽은 후에 보국

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정1품)에 추증(追贈)되어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허준의 자(字)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이다.

허준은 의과(醫科)에 급제하여 내의원에 의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의과방목>(醫科榜目)에 허준의 이름은 없다. '방목'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한다. 그런데 당대의 유명한 학자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1567년부터 쓴 「미암(眉巖)일기」에는 허준이 1568년 1월 29일 그를 찾아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반년 뒤 그를 영의정에게 내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한 기록도 있다. 그 때 의관이 되었다해도 1569년이 된다. 이렇게 의관이 된 후 그는 임금을 직접 치료하기도 하고, 「동의보감」등을 써서 유명한 의학자로 성장한 것이다.

또 방송극에서는 허준의 선생님이로 유의태(柳義泰)라는 가공인물을 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해 만든 이야기일 뿐이다. 비슷한 이름의 의사가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유이태(劉以泰) 또는 유이태(劉爾泰)는 허준보다 뒤에 살았다. 의관이 되기 전의 허준의 스승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의관이 된 다음에는 당대 대표적 의학자라 할 수 있는 양예수(楊禮壽: ?~1600)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내의원은 당시로서는 가장 최선의 의학과 최고의 의술을 모두 갖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선배 의관이던 양예수 등이 그를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예수는 1549년 의과에 급제했으니, 허준보다 20년 앞서 의관이 되었던 인물이다. 「실록」에서 양예수와 허준이 함께 나올 때는 반드시 양예수의 이름이 먼저 나오며, 그가 죽은 후에야 허준은 내의원의수의(首醫)가 되었다. 이런 자료를 보아도 허준은 내의원에서 양예수에게 배우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양예수와 허준



을 당시 의학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오늘날의 드라마는 잘못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1571년(선조 4) 33세 때 허준은 내의원 종4품 첨정(僉正)이었던 것으로 「미암일기」에는 적혀 있다. 그리고 1575년(선조 8) 그는 임금 선조를 진료했다는 기록이 당시 「실록」에는 이렇게 남아

(諺解胎產集要),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를 펴냈고, 전염병에 대해서는 「신찬벽온방(新撰辟瘟方)」, 「벽역신방(辟疫神方)」을 지었다.

「동의보감」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대략 30여 차례 출간되었고,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출간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았다. 이 책은 내경(內景) 외형(外形), 잡병(雜病), 탕액(湯液), 침구(鍼灸)편으로 나뉘져 있고, 양생(養生)과 의학의 두 전통을 종합한 아주 편리한 의학사전 역할을 했던 셈이다. 병의 치료와 예방은 물론, 병의 증상, 진단, 예후, 예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냈다. 그는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 성홍열(猩紅熱) 연구를 통해서 매우 상세한 관

「명의(名醫) 안광익(安光翼)·허준(許浚)이 들어가서 임금의 맥(脈)을 보고, 임금이 전에 비해 더 수척하고 비위의 맥이 매우 약하며 또 번열(煩熱)이 많아 찬 음식 들기를 좋아하고 문을 열어 놓고 바람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였다.」 — 〈선조실록〉 선조 8년 2월 15일(갑신)

있다. 「실록」에 보이는 그에 관한 첫 기록이다.

그로부터 허준은 임금의 질병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또는 의학책을 책임지어 집필하는 의학자로서 여러 차례 기록을 남긴다.

특히 1592년부터 1595년까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나라는 엉망으로 황폐하고 국민은 굶주리고 병들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약초가 있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병들어 죽고 있다고 판단한 임금은 약약을 정리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도와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약초를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글로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 허준은 1596년(선조 29) 양예수, 이명원, 정작, 김응택 등과 함께 「동의보감」 편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다시 침입한 왜군 때문에 편찬이 중단되자 선조는 허준에게 단독 편찬을 명했다. 그 전에 얼마나 편찬이 진행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허준은 전에 하던 작업을 단독으로 끝내게 된 셈이다. 궁중의 의서 500여권을 참고하여 14년만인 광해군 2년(1610)에 25권 25책의 「동의보감」은 완성되었다. 허준은 1581년(선조 14) 왕명으로 진맥학 기본 교재인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을 펴냈고, 「언해태산집요

찰 결과를 남기고 있기도 하여,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관찰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는 임금과 왕실의 담당 의사로서 많은 공을 남긴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허준은 의주까지 선조를 따라갔고(扈從), 그 때문에 「호종공신」이 되었다. 그 후 낮은 신분 때문에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지만, 작위가 높아져 '승록대부 충근정랑 호종공신 양평군(崇祿大夫 忠勤正亮 扈從功臣 陽平君 許浚)'이란 종1품에까지 올랐다. 그렇지만 그가 드라마에서처럼 시체를 해부한 일은 없다고 판단된다.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시체를 의학적 목적으로 해부했다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바로 허준의 시대에 전유형(全有亨)이 시체를 해부했다는 간단한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기록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가 불치병에 쓰러져 죽은 그의 스승의 시체를 해부했다는 이야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드라마 작가의 상상일 뿐이다. 많은 과장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소설이나 드라마가 역사를 대중화하는 공은 크다. ⑤